

포천사회 知識人 ⑤9

대진대학교 김정완 교수

“고용창출 할 수 있는 IT산업단지 유치해야”

우리기업은 우리지역에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특히 포천에 어울리는 산업 단지로 IT업종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완(47·사진) 교수가 포천시 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 해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우리기업’이라는 개념의 공유를 강조한다.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증대의 핵심개념이다. 우리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을 우리기업이라고 한다. 우리지역 출신이라도 우리지역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지역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다면 우리기업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지 임대는 물론 보조금 지급, 진입로 확보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포천지역에서는 작주분리 현상이 심하다. 직장과 주거지가 다른 경우다. 이처럼 작주분리현상으로 지역에서 생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고 외부로 나가고 있다. 약 70%가 외부로 유출된다. 이유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원리 중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이다.

포천시에서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위를 중심으로 포천시 교육발전 정책을 밀도 있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 영광군이 고창인 김 교수는 군남초등학교, 군남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대진대학교에 부임해 현재 행정학과 학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재우행정과 지방재정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공과목 강의 외에도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삼품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 한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현실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능력 제고를 위해 NIE(Newspaper In Education)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성이



강한 신문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신문 사실을 매일 2편씩 요약하고 학생 자신의 견해를 밝혀 1주일에 1회 제출토록 하여 정확하게 평가한 후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 이로써 학생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스스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대진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를 잠재력을 싹터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인행정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교수는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해 그동안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서 저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저서의 제목은 ‘지방재정 이론과 실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실수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행정학 박사로서 지방재정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준 하나만 변경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포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징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기준을 재정자립도 등 보다 세밀한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포천에 많은 공장은 지역생산

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생산량의 70%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교통문제와 환경오염만 포천에 남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생활기반 시설인 의료와 교육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외유출규모를 산정하여 경기도와 정부가 조정재원에 지표로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수백억원 이상이 포천시 재정으로 편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천시에 거주하는 2만5천여명의 군인을 상주 인구에 포함시키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지역의 현안 문제·이슈를 다루는 특집기사를 게재하기를 바라며 포천신문이 단순한 지역소식지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포천시 지역의 선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Vilfredo Pareto(1848~1923)가 ‘엘리트 순환론’(Circulation)에서 “정치엘리트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여우형, 정권을 잡으면 사자형대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치인이 권력을 쥔취했을 때 국민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내 영혼을 깨끗이 간직하고 싶다”를 좌우명으로 삼아 생각이나 행동자세를 절제하면서 학문에 매진하고 있는 김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주요논문과 저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석사학위논문)▶지방행정비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박사학위논문)▶경기도 시군간의 지방세 불균형 분석(2001)▶포천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관광세도입방안(2003)▶경기 북부 신실의 주요정책:재정력을 중심으로(2003)▶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조정방안(2004)▶경기도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재정보전방안(2006)▶헨리조지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2006)▶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2006)▶신행정부 건설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2006)▶뉴케인즈 경제정책(1999)▶지방재정학(1997)▶공공선택론:정부실패(2003)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교육발전 위한 정책 시급하게 필요하다”

취재파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포천시 등 정체지역 발전지역으로 둔갑

수도권 발목잡아 국가경쟁력 오히려 저해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포천시민을 비롯한 기업인, 각급 단체들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포천시는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지난 60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와서 또다시 차별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지역은 전체면적의 3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미군 사격장인 영평사격장(409만평), 동양최대 승진훈련장(600만평) 등 한국군과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과 훈련장 면적만 하더라도 1천30만평에 이른다.

이들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해 지역개발은 물론 농작물 피해, 주택과손, 인명피해 등 직간접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전후 60년 동안 포천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정부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의 일방적 개발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과 성장은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고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논리에 의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1 단계로 분산정책을 시행한다는 취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 및 기업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하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올 7월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2개 부분(기업대체와 사립대학) 14개 분야 3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9월19일에는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지역분류 시안의 주요내용은 23개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의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5대 분야와 14개 변수를 종합해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4개 그룹에 따라 법인세를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감면, 정체지역 50%감면, 성장지역 30%감면, 발전지역에는 혜택이 없다. 또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성장지역과 정체지역,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와 50%, 3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20%와 정체지역 10%를 감면해 주고 성장지역과 발전지역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해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분류 시안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은 한곳도 없다. 게다가 이전에 정체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포천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이들지역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혜택을 감소 내지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들은 포천시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구광

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시와 포항시, 구미시, 거제시, 창원시 등 공업도시와 함께 포천시를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자립도 90%이상인 울산시와 32%인 포천시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경기도 지역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포천시 등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발전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원리로 미군기지 이전지역, 미군공여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제주도와 같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비)수도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23개 시·군·구를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수도권 발목을 잡아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 재원 요소 등 실효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활성화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 발전이 아닌 지방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도권 규제 발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 발상이며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인 만큼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떠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수도권경비계획법,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규제도 지역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포천시 지역에는 영종면에 소재한 영평사격장만 하더라도 평택 마하당 사격장 53만평의 7.7배, 군산 직도사격장 3만6천평에 비해 113배 많은 409만평이 미군사격장으로 60여년 동안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장과 사격장 등을 합하게 되면 8개소에 1천30만평이라는 거대한 토지를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다. 안보논리에 의한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군사시설 보호법의 의한 지역개발의 족쇄 등으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군산 직도사격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3천억원을 지원했고 평택시에 미군기지를 건설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해 총 18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제 평화도시 건설과 430만평의 공장물량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 미군이 떠나는 서울 용산기지는 국가에서 국립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희생만 강요당해 온 포천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의 차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점 모집
일반식당 납품가능
가정 소량배달
대형유통업소 입점예정

※ 본 제품은 식품 가공과정과
가공 시설 일부가 특허출원 중입니다.
출원번호:10-2007-23490 외 2건

포천시 판매하고 있는 곳

- 2 소홀농협 하나로마트
- 2 가산농협 하나로마트
- 2 개성인삼농협 하나로마트
- 2 포천농협 하나로마트
- 2 일동농협 하나로마트

각 매장 냉동식품 코너
은행을 파실분 사실편 모두 연락주시시오

제조판매원 : 무봉식품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116-3
전화번호 : 543-1958
휴대폰 : 011-9781-0688
팩스 : 543-1957

경기도 포천시 보호수 제 2호



무봉식품 은행나무

속 깍뎀기 까지 출랑 까버린
무봉 알 은행

모든 식단의 요리가 은행 몇 알의 투자로 최고
급 요리로 변신하는 절호의 찬스!
국내 최초로 속 깍뎀기 까지 출랑 까버린 은행
이 경기도 포천시 무봉식품에서 태어 났습니다.
까시는 불편을 싹 없애버린 초 간편 식자재,
모든 요리에 그냥 넣기만 하면 최고급 요리로
변신 합니다.

첨가 대상 요리

삼계탕, 갈비탕, 곰탕, 닭도리탕, 도가니탕, 갈
비찜, 아구찜, 닭갈비찜, 순대국, 사골국, 영양
돌솥밥, 잡곡밥, 집탕밥, 볶음밥, 꼬치구이, 자
장면의 고명, 탕수육의 소스, 피자의 고명, 송
편속의 고명, 시루떡의 고명, 각종 죽요리 등
한식, 중식, 양식, 기타 따뜻한 요리의 첨가용.